

6년근 홍삼 그대로… 실패 없는 ‘명품 선물’

KGC인삼공사

명절 대표 건강선물 정관장 홍삼 농축액
면역력·피로개선 등 5대 기능성 인정받아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실패하지 않는 선물’을 찾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받는 사람의 연령과 취향, 라이프스타일까지 고려한 상품이 쏟아지면서 한우·과일 등 전통 선물부터 디지털·커피·간편식·리빙 제품까지 품목이 확대됐지만, 부모님이나 웃어른을 위한 선물로는 익숙한 제품과 브랜드가 여전히 선택지로 꼽힌다.

대표적인 품목이 홍삼이다. 홍삼은 오랫동안 명절 대표 건강 선물로 자리 잡은 데다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까지 갖고 있어 선물 수요가 꾸준하다. 특히 다양한 제형과 원료를 앞세운 건강기능식품이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전통적인 농축액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다.

정관장 ‘홍삼정’은 6년근 홍삼을 달여 농축한 100% 홍삼농축액 제품이다. 다른 부원료를 넣지 않고 홍삼 자체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정관장의 주요 홍삼 제품은 원료와 제조 기술 측면에서 홍삼정을 기반으로 개발된다. 이를 바탕으로 ‘홍삼정 마스터클래스’, ‘홍삼정 리미티드’ 등 프리미엄 라인업도 운영하고 있다. 내부 조직이 치

밀하고 맛과 향이 뛰어난 지삼 등 희소 원료를 활용한 제품은 프리미엄 건강식 시장에서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기능성도 명확하다. 홍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 등을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 5대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오랜 시간 이어진 제품이라는 점도 선물을 고를 때의 고민을 덜어주는 요소다. 최근에는 스틱과 음료, 구미 등 건강기능식품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농축액 형태의 홍삼정 역시 꾸준히 선택되고 있다.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모님과 웃어른에게는 새로운 제품보다 오랜 기간 익숙하게 소비돼 온 품목이 선물 선택의 부담을 낮추는 대안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홍삼정.

/KGC

식품부터 여행까지… 안방서 누리는 풍성함

롯데홈쇼핑

추석 특집전 ‘보름찬 다드림쇼핑’ 열어
식품 집중 편성… 연휴 후 뷰티·여행 상품도

롯데홈쇼핑은 이달 21일까지 추석 특집전 ‘보름찬 다드림쇼핑’을 열고 국내산 먹거리부터 해외 식재료, 주방용품까지 명절 관련 상품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대표 프로그램의 추석 특집 편성을 확대하고 구매 고객 대상 적립금 혜택과 숏폼 영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루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스탬프 1개를 지급하고 누적 스탬프 수에 따라 적립금을 제공한다.

TV홈쇼핑에서는 이달 21일까지 명절 선물과 추석 상차림 수요를 겨냥해 먹거리 상품을 집중 편성한다.

부산 한식당 ‘사미현 갈비탕’을 비롯해 원육을 사용한 ‘한원정 꽃갈비’, ‘신세계푸드 LA갈비’ 등을 판매한다. 오는 18일에는 일본 후쿠오카 장어구이 전문점 ‘이나카만’의 장어구이 세트를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식품 방송 최초로 고객이 원하는 배송일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명절 준비와 연휴 이후 수요를 고려해 뷰티와 가전, 여행상품 편성도 확대한다. 19일에는 ‘리얼데인 셀라뉴 퍼스트 에센스’를, 20일에는 ‘달바’, ‘AHC’ 등 뷰티 브랜드의 추석 에디션과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빅마마쇼 추석 특집 방송 이미지.

/롯데홈쇼핑

18일부터는 ‘샤크 청소기’, ‘로보락 습건식 청소기’ 등 생활가전을 판매한다. 연휴 이후 출발하는 여행상품도 편성했다. 20일에는 ‘참좋은여행 북해도’와 ‘교원투어 이집트·스페인’ 패키지를 판매하고, 27일 오후 5시부터 120분 동안 일본 여행 특집전을 진행한다.

대표 프로그램 ‘최유라쇼’는 추석을 맞아 ‘특별한 추석’ 특집을 진행한다. 19일에는 ‘청도반건식’, ‘횡성한우 세트’, ‘담꽃 생강차’ 등을 판매한다. ‘요즘쇼핑 유리네’는 같은 날 ‘아로마티카 에센스’를 별도 패키지로 선보인다.

이달 27일까지 ‘최유라쇼’와 ‘요즘쇼핑 유리네’의 추석 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숏폼 영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리가족 추석 선물 리액션’ 또는 ‘롯데홈쇼핑 상품 리뷰’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호텔 식사권과 백화점 상품권, 커피 교환권 등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seoh@

군위 사과 듬뿍… 달콤한 지역상생 디저트

롯데웰푸드

지역경제 활성화 ‘군위 사과’ 신제품 선보여
몽셀·꼬깔콘 등 대표 브랜드 15종에 적용

롯데웰푸드가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손잡고 ‘군위 사과’를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군위군의 사과는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한다. 팔공산 자락에 위치해 과수 재배에 적합한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을 갖춘 지역적 장점 덕분에다. 롯데웰푸드는 군위 사과의 특징점을 자사 대표 브랜드에 접목해 건과 11종, 빙과 2종, 베이커리 2종 등 총 15종의 ‘군위 사과’ 시리즈 라인업을 선보였다.

출시 제품은 ▲몽셀 애플 ▲꼬깔콘 애플시나몬 ▲ABC초코쿠키 애플요거트 ▲롯데 애플 ▲제로 미니 케이크 애플시나몬 ▲제로 초코파이 애플시나몬 ▲제로 연양갱 애플시나몬 ▲아몬드볼 애플요거트 ▲크런키 초코바 애플카라멜 ▲사과캔디 ▲과일한입 젤리 애플 등 건과 11종과 ▲위즐 애플잼크림 모나카 ▲조이 그릭요거트 군위사과 애플 등 빙과 2종 그리고 ▲기린 오리진 카스테라 애플 ▲기린 애플 생크림빵 등 베이커리 2종이다.

패키지 디자인부터 오프라인 프로모션까지 지역 홍보를 위한 다채로운 활동도 전개한다. 제품 패키지 전면에는 사투리를 활용한 ‘군위 사과 왔데이’라는 재치있는 슬로건을 삽입해 친근감을 더했다. 뒷면에는 군위 사과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문구도 넣어 특산물 홍보 효과도 제고했다.

/신원선 기자

실속·이색상품 등 선물세트 600여종 선보여

GS리테일

‘우리동네 선물가게’ 테마로 명절선물 준비
골드·로봇 등 폭넓은 구성에 할인 혜택까지

GS25가 추석을 맞아 다음달 26일까지 ‘2026 우리동네 선물가게’를 테마로 600여 종의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는 로봇과 스마트 기기, 골드·실버 상품, 주류 등 이색 상품부터 식품 중심의 실속형 상품까지 폭넓게 구성했다.

명절 선물세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전 행사도 진행한다. 다음달 4일까지 127개 상품을 대상으로 삼성·KB국민·BC·신한카드와 제휴해 1+1, 2+1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스마트 기기 상품군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 스마트워치와 음식물처리기 등을 선보인다. 얼굴 표정과 음성 톤, 몸짓, 맥박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해 반응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소셜로봇리쿠’를 비롯해 바둑을 둘 수 있는 ‘센스로봇고’, AI 대화 기능을 탑재한 로봇 커피 ‘에일리코’ 등을 마련했다.

러닝과 건강 관리 수요를 겨냥한 가민 스마트워치와 명절 음식 조리 후 남은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미닉스 MAX 음식물처리기’도 판매한다.



GS25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GS리테일

금과 은을 활용한 상품도 총 15종을 준비했다. 안중근 의사의 수인과 초상을 담은 ‘한중근 의사 금메달 3.1g’, 이중섭 작가의 은지화를 활용한 ‘이중섭 은지와 은메달 20g’과 ‘이중섭 흰소 동메달 350g’, 보물로 지정된 데니 태극기를 카드 형태로 제작한 ‘데니 태극기 카드형 금메달’ 등을 선보인다.

주류 선물세트도 와인과 위스키, 사케 등으로 구성했다. 와인은 ‘5대 사포 2016 빈티지 세트’, ‘사포 무똥 로칠드’를 비롯해 ‘이태리 카를로사니 아이론 2입 세트’, ‘프랑스 보르도 슈페리어 2입 세트’, ‘알타감마 2입 세트’ 등을 선보인다.

위스키는 ‘더 낮가 리미티드’, ‘듀어스 더블더블 36년’, ‘발렌타인 10년’, ‘시바스리갈 12년’ 등을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롯데마트 PB ‘오늘좋은’ 선물세트 첫 선

롯데마트

오늘좋은 매일견과 선물세트 첫 출시
가격부담 줄이고 주요 견과류 비중 높여

롯데마트슈퍼의 자체브랜드(PB) ‘오늘좋은’이 명절 선물 시장으로 상품군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롯데마트슈퍼는 이번 추석 ‘오늘좋은 매일견과 80봉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오늘좋은은 2023년 론칭한 마스터 PB 브랜드로, 식품과 비식품을 아우르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명절 선물세트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마트슈퍼는 견과류 선물 수요와 원물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첫 명절 상품으로 견과 세트를 선정했다. 최근 주요 견과류 원물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해외 직소싱을 통해 상품 구성을 차별화했다는 설명이다.

‘오늘좋은 매일견과 80봉 선물세트’는 아몬드 비중을 전체 원물의 40%로 구성했다. 호두와 땅콩 대신 마카다미아와 구운 캐슈넛도 포함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원물 조달과 견과 가공이 모두 가능한 해외 전문 업체를 활용했다. 여러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를 거치는 기존 방식 대신 원물 수입부터 배합, 소포장, 완제품 제작까지 한 곳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롯데마트·슈퍼 자체브랜드(PB) 상품 ‘오늘좋은’이 명절 선물 시장에 진출한다. /롯데쇼핑

롯데마트슈퍼에 따르면 아몬드 시세는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회사는 상품화 과정을 일원화해 원물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주요 견과류 비중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슈퍼는 이번 선물세트 출시를 시작으로 오늘좋은의 상품 영역을 명절과 시즌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외 소싱망을 활용해 식품과 생활용품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용 롯데마트·슈퍼PB·수출입부문장은 “이번 상품은 ‘오늘좋은’ 이름을 내건 첫 명절 세트인 만큼, 선물에 걸맞은 상품성과 실속을 함께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